

부정적인 사회적 유대가 노년기 성공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 혜 정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노년기 사회적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관계망과의 긍정적 관계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관계망과의 갈등적인 측면에 관한 논의가 간과되어 왔음에 주목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부정적인 사회적 유대가 노년기 성공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60세 이상의 남녀노인 241명(남성노인 101명 여성노인 140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 형제자매, 다른 친척, 친구·이웃과의 부정적인 사회적 유대와, 노년기 성공적 적응의 지표인 자아통합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회관계망의 여러 유형 중 자녀와의 갈등관계가 남녀노인 모두의 자아통합감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와의 갈등관계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여성노인보다는 오히려 남성노인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이외의 사회관계망(형제자매, 친척, 친구·이웃)과의 부정적 유대는 남성노인의 자아통합감에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성노인의 자아통합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과의 부정적 유대가 노인의 성공적 적응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노년기 사회적 관계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정책적 차원에서도 관점을 확대시켜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노인에게 지원을 제공해주는 사회적 지원망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뿐만 아니라, 부정적 사회적 관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